고은 불교대하소설

지 진

"내생에 가지고 가나 금생에 끝장내나… 그 차이야 터럭 끝 아니겠어" 인담이 평소의 그답지 않게 허물없는 대꾸로 우녀를 눌렀다

두 사람은 오전내내 서로 다른 벽에 대고 앉아 있었다. 이미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머리로부터 뱃구리의 단전(丹田)으로 내려와 있어서 마음의 상태는 항상 평안하였다.

지난 시절 인담은 화두를 잘못 들은 나머지 상기(上氣)가 되어 도무지 잠을 잘 시간에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그런 때는 환각 속에서 쥐가 몇백마리가 발 밑으로 달려가는 일때문에 놀란 적도 있었다.

그런 상기로 화두꽃이 피면 머리통에 붉은 빛의 부스럼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화두꽃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다 하거니와 그 때의 인담은 우선 그런 머리통을 찬물에 처박아 푹 담그는 것으로 물맞기 치료를 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때까지의 화두 대신 물맞는 관(觀)을 하기 시작하였다. 눈을 지긋이 감고 머리 정수리에 폭포를 맞는 관이었다.

과연 그런 관(觀) 속의 박연폭포를 맞고 나면 한결 머리에 오른 상기가 내려가고 있었다.

"박연폭포!"

그가 품속의 스승 달인의 인도(引導)로 입춘의 문집을 찾기 위하여 산중의 암굴을 다녀오는 길인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 뜻밖의 박연폭포에 이르는 길로 접어 들었던 것이다.

그때 한낮의 햇빛이 퍼붓는데 그 햇빛이 이스라히 폭포 위로부터 폭포에 빨려들어 숫제 눈을 뜰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는 가슴 속의 박동도 맞은 듯이 폭포가 내는 굉음과 폭포가 떨어져 수많은 포말로 튕겨오르는 장관에 어이할 바를 몰랐다.

이미 여름 한낮이라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는데 어느덧 그런 땀이 쑥 들어가 버리고 몸은 송장인양 식어버렸던 것이다. 머릿속은 텅 비어 아무런 생각의 꼬투리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때 그는 무(無)란 단순히 허무가 아니라 커다란 공간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기까지 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거의 뜬눈으로 보내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면서 비틀걸음으로 떠났다. 정작 새벽녘부터 귀가 멍멍해지면서 폭포의 굉음이 들리지 않더니 그곳으로부터 한나절이 다 걸려서 당도한 삼거리 주막 언저리에 이르러서야 그때까지 귀신처럼 따라붙었던 폭포의 굉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마구 걸음을 빨리하였다.

아무튼 인담으로서는 이런 화두로 인한 상기와 그 상기를 이겨내기 위한 폭포관(瀑布觀)으로 어느 만큼 상기를 달랠 수 있었던 지난 날이 떠올랐다.

이제야 그런 과정을 거친 인담에게 이이없게 상기가 찾아올 까닭이 없다. 인담과 함께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방선 뒤 우녀가 다리를 풀면서 한마디 남겼다.

"이 노릇을 내생에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다니… 금생에 끝장낼 일을 가지고…"

"내생에 가지고 가나 금생에 끝장내나… 그 차이야 터럭 끝 아니겠어?"라고 인담이 평소의 그답지 않게 우녀를 눌렀다.

언제나 우녀를 섬기는 것으로 살아온 인담으로서는 뜻밖의 허물 없는 한 마디 대구(對句)였다. 우녀도 그 맑은 눈빛으로 미소를 머금었다.

"이제야 우리는 일심동체(一心同體)인가 보아요."

"…"

"인담스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높낮이도 없고 아무런 길고 짧음도 없으니"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 엉겨붙어 그들 사이의 거리는 실로 찬란한 정신의 잔치였다. 잔치라면 시끌벅적해야 하겠지만 이렇듯이 적요 그 자체의 눈빛만으로써도 더 없는 귀머거리 잔치일 줄이야.

이제 그들은 형상이 없어도 좋았다. 육신이 없어져도 좋았다. 일체의 욕계(欲界)가 갖추어야 할 것을 한갖 매미나 뱀의 허물처럼 가을의 잔 바람결에도 실없이 뒤척이다가 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현세에 있다. 두 사람도 모든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그들의 몸에 정(精)을 지니고 있다.

정은 기(氣)에 속한다. 굳이 이런 정을 등유(燈油)라고 하면 기는 심지이다. 그 기름과 심지로 밝혀지는 불빛은 신(神)이다.

그러므로 기·정·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심신을 이루는 핵심이다. 사람이 화를 내면 얼굴이 붉어진다. 열이 오른다. 이렇게 기가 오르면 정이 상승되고 이어서 피가 위로 치솟아서 상기를 이루는 것이다.

공부하다가 상기가 되면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다. 참선은 더 그렇다. 그래서 상승된 화기(火氣)를 아래에 있는 수기(水氣)를 끌어올려서 바꿔야 한다. 그것이 물맞이이고 그것이 폭포를 관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우녀야말로 항상 단전이 삶의 중심이 되었으니 가슴 위로 더운 기가 올라갈 턱이 없었다.

구름이 가는 구나
이어서 달이 가는구나

어느덧 두사람의 수행은 자연스럽게 연단(煉丹)을 익혀서 배꼽 아래 단전에 화두이든 화두가 아닌 묵조(默照)의 공(空)이든 거기에 두고 있으면 되었다.

어디 좌선일 뿐인가. 행주좌와(行住坐臥)가 다 단전으로부터 있을 만하였다. 정은 기를 따르고 기는 신을 따라서 단전의 기해혈(氣海穴)에 담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따위 외단 내단(外丹·內丹)의 연단법에 얼시구 좋아라하고 집착하는 일도 수행의 무애경지에서는 우수광스러운 작위(作爲)가 아니겠는가.

그럴 때 우녀가 "우리는 제발 너덜너덜한 허수아비가 되어 서리나 맞는 신세인지 모르겠어"라는 농담을 던지거니와 그 농담에는 인담도 동참해야 마땅하였다.

"참 재미도 있는 일이예요. 천축나라 영축산이 어디인데…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은 멀리 멀리 벵골만의 바다 한복판 그 밑에서 사는 바다 용왕 일행의 예방을 환영하신 적이 있지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대승의 법을 말씀하셔서 용왕 일행은 무척이나 기뻐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나는 부처님보다 그 바다의 용왕을 훨씬 좋아하는데… 그 천축 내륙의 산중에까지 그 일행을 데리고 찾아온 진리에의 발원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 멋진 용왕을 맞아들인 부처님도 강과 냇물이 함께 들어와도 옛 이름이 없는 것. 여섯째,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증감이 없는 것. 일곱째 수많은 종류의 고기가 함께 사는 것. 여덟째 짠 맛이 바다 한가운데나 바닷가나 똑같은 것들을 손꼽았다.

우녀가 그런 인담의 말을 이었다.

"그런즉 우리는 그런 많은 바다의 덕택으로 우리 공부가 이만큼 손톱 사이에 끼어든 때만큼이라도 되어 그것이 3천대천세계의 이쪽과 저쪽만큼 넓은 것과 다를 바 없겠지."

낙조에 물든 무욕도가 마구 떨었다…파도도 날뛰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불을 질러 태워버릴까."

"호호 인담선사도 제법이시네."

"한번 불질러서 잿더미나 이루어볼까."

그때였다. 우녀가 인담의 몸을 껴안으며 "우리가 언제 불을 끄고 살았던가. 이렇게 몇10년동안 늘어 붙어서 새끼를 퍼질러도 맞놀을 퍼질러 다른 세상에 각각 보냈던 것 아닌가."

인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암."

그때였다. 잔뜩 흐린 날의 짙은 잿빛구름이 먹구름으로 바뀌었고 기압이 낮아져서 파도들도 조급은 억눌린 것처럼 둔중하게 찰삭대고 있었다. 유난스럽게 바다냄새가 진하였다. 그런가 하면 높게 나르기를 좋아하던 어린 갈매기들이 낮게 파도 위를 기어가는 것 같았다. 제비들은 아예 보이지 않고 육지 쪽으로 건너간 모양이었다.

"슬슬 단전이나 채웁시다"라고 우녀가 그녀의 맨살 배꼽께를 들어내보이며 거침없이 말하였다. 이른 저녁의 약석(藥石-저녁공양)을 마치자는 것이었다.

그녀는 벌써 후원으로 나가 찬밥을 차려오고 있었다. 그야말로 단전이 더운지라 찬밥도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었던가. 두 사람은 그런 찬밥을 먹는 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었다.

하루에 한번만 밥을 지으면 되었다. 늦은 아침에 하품을 반찬으로 삼아 더운 밥을 먹으면 그것이 점심공양을 겸한 것이 되었다. 본당 불상에는 계절의 꽃 한 송이와 향 한 줄기 살라놓는 것으로 사시(巳時) 불공을 다하는 터였다.

두사람은 밥을 먹는지 안먹는지 모르게 아주 느릿느릿 밥그릇을 비워갔다. 우녀가 빈 밥그릇을 마치 정든 벗처럼 들어올려 "네가 나보다 공부가 잘되어서 텅 비었구나"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정작 인담에게는 전혀 딴 내용의 말을 거는 것이었다. 그것은 매우 만족한 상태의 독백이기도 하였다.

"인담스님, 곡차 한잔 생각나?"

"응."

그들에게 곡차란 솔잎을 어떻게 발효시킨 것인데 고대 인도에서의 술이 덜 된 상태의 사루가주(菌糖酒)인 셈이었다. 사루가주란 불멸후 1백년이 지난 뒤에 생긴 교단의 한 비법(非法)으로 마셔도 된다는 술이었다.

"곡차 있고… 계집이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겠어? 인담스님, 당신은 참으로 바다의 덕을 다 누리는 장부로군."

"우녀스님이야 진작 여장부 아니던가."

그때였다. 솔잎의 차를 따르는 우녀의 손이 떨렸다. 아니었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아니었다. 그들이 앉아있는 방이 떨렸다.

무욕도 전체가 한껏 낙조에 물들어서 마구 떨고 있었다. 파도도 마구 날뛰었다. 지진이었다.

그림·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신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게재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 비만 관리 시술법
•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 시술도 병행함
장삼수 건강연구원 입구장역 543-7306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8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원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범종주조사 聖鐘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분양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국가공인기관관리·
※ 불자 상담 환영
▶동대문최요지전문상가 8500萬 투자
▶1년후 : 2~3억원 (은행 대출3천만원)
▶본사보장 첫임대시, 保3千, 月90萬 책임보장
▶전화 : (02)264-2512
▶담당 : (과장) 최경란 합장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팩스:(02)266-2679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재산에 욕심 가지 · 금욕감이 없다
• 호흡, 체육의 원리 · 가전법 · 지름길법의 강좌
• 수련과정 명불상대수련 · 전신경락수련 · 명상수련
• 전신경락수련을 통고 나면 성명요고문과 심리가 활성화되고 명리도사이대학 호흡연구소 설립,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성교육 제공해 줍니다.
수련장 사원사 충현면 마룡산 용상선원
인담 ☎ (0903)34-1115-6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축지법의 파헤친 기획물,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가 격 : 50,000원 (발송비 별도)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일원(제만사) 대웅전 · 법상 · 경상
• 지장사(대부사) 대웅전 주이단 전체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주이단 용각 목조탑
• 동림(정보사) 대웅전 문짝
• 부천(법당사) 대웅전 영주전 문짝
• 성남(법륜사) 대웅전 문짝 단청
• 종주(삼막사) 대웅전 주이단 법상 경상
• 마산(진광사) 대웅전 주이단 용각
• 포천(명원사) 대웅전 문짝 단청
• 안양(원전사) 대웅전주이단일경각일상
• 서울(학림사) 화엄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6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청구 및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성냥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홍 정 수
■나이 : 30세
■키 : 165cm
95년 8월 집을 나감
사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할머니께서 위독하신 상태로 애타게 (청주한방병원 309호) 찾고 있으므로 위 사람을 알고 계신 분이나 본인은 급히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 (02) 683-3252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우성 타운 301번지